

F. S. 호세의 《에르미따》 나를 “찌른 창”은 누구의 것인가

글_이주연기자



《에르미따》
F. S. 호세 지음 | 부희령 옮김 | 아시아 | 499쪽 | 값 13,000원

‘치부’는 내 것인 동시에 내 것이 아니다. ‘부끄럽다’고 느낀 이상 그것을 보는 시선은 언제나 내부자

태어난 가문의 수치인 그녀에게 가족의 사랑 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외면, 이모의 냉담과 경멸, 삼촌의 성추행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이모의 운전기사 아르투로의 가족들과 함께 차고에 살며 학교를 다닌다. 결국 이모와 삼촌에 의해 그 차고에서마저 쫓겨나게 되었을 때 에르미따는 ‘복수’를 결심하게 된다.

의 은밀한 것이지만 ‘부끄럽다’는 자각에는 객관적 판단이 깃들어 있다. ‘자각’은 언제나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치부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만든 것은 외부의 정신적이거나 물리적 폭력이다. 치부를 떠올릴 때 더욱 분노케 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카마린’이라는 고급요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 가문의 진정한 ‘치부’가 되기로 결심하자 오히려 일은 잘 풀린다. 거물급 외국인들에게 ‘몸’을 팔기시작하면서 그녀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창녀가 된다. 에르미따의 몸을 거쳐 가는 다양한 국적과 직업의 남자들은 그대로 필리핀의 산 역사다.

지책의 “상치는 당신을 찌른 그 창에 의해서만 치유된다”는 명제는 따라서 ‘치부’에도 해당된다. ‘치부’를 만든 ‘그 창’이나 치유를 위해 얼마나 협조적일지가 의문이지만.

그러나 어느 남자도 에르미따를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 그녀의 ‘치부’ 때문이 아니라 ‘치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녀의 당당함 때문이다. 그녀는 “매춘을 오직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행위라고 가정한다면, 진짜 매춘부는 가면을 쓰고 인격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에르미따를 필리핀의 ‘치부’라고 한다면 그 치부를 만든 이들은 누구인가. 그녀를 “찌른 창”은 필리핀이 겪은 영욕의 세월이다. 그녀가 가족에게 복수하고서도 중국에 폐허와 같은 상실감에 시달리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F. S. 호세(Francisco Sionil Jose)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필리핀의 국민작가다.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식민지배와 마르크스의 독재로 이어진 필리핀 현대사를 다룬 5부작 《로살레스 사가》는 그가 22년에 걸쳐 발표한 대작이다. 이 작품으로 그의 명성은 필리핀을 넘어 세계로 뻗게 된다.

작가는 에르미따라는 창녀의 몸에 조국의 근현대사를 새겨 넣고, 그녀의 정신에는 결코 수탈당하지 않는 조국의 고결함을 부여했다. ‘환멸’ 이면서도 ‘희망’ 일 수밖에 없는 그녀, 에르미따는 작가에게 곧 조국이다.

작가가 1988년 출간한 《에르미따》는 그의 작품들 중 가장 대중적으로 읽힌 작품이다. 일단 주인공이 ‘창녀’라는 설정이 자극적이고, 그녀가 펼치는 ‘매춘 오디세이’가 필리핀의 근현대사를 대단히 직설적으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평론가와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런 소설들은 읽는 내내 아프다. 드러내서 밝히고 싶은, 그러나 끝내 모른 척하고 싶은 ‘치부’의 모순된 속성 때문에 작가가 겪었을 고뇌가 겹쳐 읽어지니까. 하지만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치부를 찬찬히 살피는 것은 내 안의 뒤틀린 뿌리를 인식하고, 나를 찌른 창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에르미따》는 우리의 ‘치부’까지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

에르미따는 주인공의 이름 이전에 실제로 마닐라의 대표적 환락가 이름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1945년 미국의 필리핀 탈환 때 폐허가 되어 방치되다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며 환락과 유흥의 중심지가 되었다.

소설은 1945년 미군이 일본군으로부터 필리핀을 탈환하는 시기, 부유한 메스티소(스페인계 혼혈) ‘로호 가문’의 둘째딸 콘치타가 일본군 병사에게 강간당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주인공 ‘에르미따’이다.

그녀는 가족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존재다. 강간으로